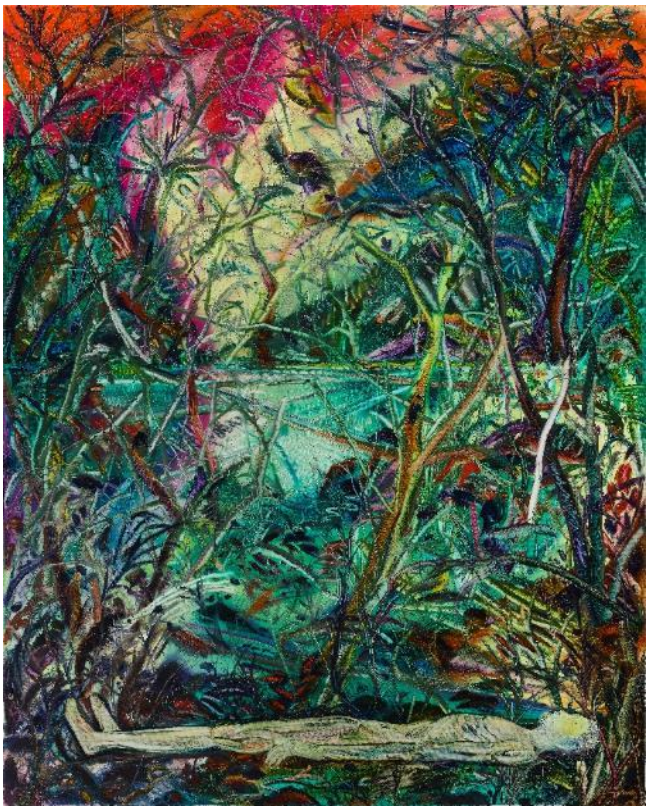
學古齋
Hakgojae
Gallery
03053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0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info@hakgojae.com www.hakgojae.com

학고재 보도자료 2026. 11. 5 / 작성자: 이주연
※ 이미지 및 텍스트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부탁드립니다.

박광수 개인전
《흰 우유의 어둠》



모든 하늘, 2026, Oil on canvas, 90.9x72.7cm

전시제목 : **박광수 개인전《흰 우유의 어둠》**

전시기간 : 2026년 11월 5일(목) – 2026년 12월 5일(토)

전시장소 : 학고재 본관 (서울 종로구 삼청로 50)
학고재 오룸 (online.hakgojae.com)

출 품 작 : 평면 회화 21점

○ 담 당 이주연 팀장 juyeonlee@hakgojae.com
○ 문 의 02-720-1524~6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261105-20261205_박광수 개인전_흰 우유의 어둠

學古齋
Hakgojae
Gallery
03053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0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info@hakgojae.com www.hakgojae.com

※ 이미지 및 텍스트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부탁드립니다.

1. 전시 개요

학고재는 2026년 11월 5일(목)부터 12월 5일(토)까지 박광수(1984-)의 개인전《흰 우유의 어둠》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간 이어 온 회화적 시도를 확장하며 '그리움'이라는 감정에 주목한다. 작가는 유년 시절을 보낸 철원의 자연과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서로 다른 시간에 속한 대상들을 한 화면에 불러 모은다. 익숙한 형상들은 화면 안에서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변하고,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기묘한 장면들이 펼쳐진다.

2. 전시 주제

박광수에게 그리움은 돌아갈 수 없는 과거와 이어지는 현재 사이의 '거리'에서 비롯된다. 지나간 장소와 사람, 일상의 장면들을 기억 속에서 불러낸다. 그것들이 현재와 만나는 지점에 무수한 직선과 곡선을 긋는다. 선들은 교차하고 엉키며 촘촘한 그물망을 이루고, 그 사이로 마모되고 흩어진 시간의 파편들이 스며든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한 시절을 그대로 재현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경험한 일에 상상이 더해지면서 어느 시점에도 속하지 않는 몽상의 공간이 나타난다. 작가는 사라진 것을 되찾기보다, 남겨진 흔적을 바탕으로 이전에는 없었던 장면을 그린다.

그 바탕에는 작가가 태어나 오랜 시간을 보낸 철원이 있다. 서울과 원산을 잇는 추가령 구조곡이 지나는 이 지역은 오래전 흘러내린 용암이 만든 평야, 그리고 주변의 산과 강이 어우러진 땅이다. 눈 덮인 들판과 논밭, 옥수수와 벼, 숲과 저수지, 마른 식물이 타는 냄새와 홍수, 불과 연기는 작가의 유년을 이루는 기억이다. 그 땅 어딘가에는 어린 시절 빠진 유치가 묻혀 있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지뢰도 남아 있다. 여름날 평상에 앉아 옥수수를 먹으며 지뢰 지대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던 어린 시절의 경험처럼, 평범한 일상에는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스며들어 있다. 여기에 땅속의 굴과 오래전 지표면을 흘렀던 용암의 흔적까지 더해진다. 숲에서 뻗어 나온 가지들은 흩어진 시간을 붙잡는 매듭이 되고, 거미줄처럼 이어지는 선들은 멀리 떨어진 순간들을 한 화면으로 불러 모은다.

이번 전시에서 박광수는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던 불가능한 상황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낸다. 몸은 땅이 되고, 신체에서 빠져나온 뇌는 하늘에 떠오른다. 오래전의 일과 현재의 느낌이 한자리에 놓이고, 자연과 신체는 서로의 모습을 빌려 전혀 다른 존재로 나타난다. 개별적인 대상은 선명하게 보이지만, 함께 놓인 까닭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시간의 순서와 공간의 법칙이 어긋난 화면에서는 무관해 보이는 일들이 뜻밖의 계기로 이어진다. 흩어져 있는 파편들이 동시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익숙했던 세계는 낯설게 다가온다.

박광수의 회화에서 선은 대상을 구분하는 동시에 장소와 사물을 잇는다. 선 위에 다시 선을 긋고, 이미 그린 부분을 문지르거나 긁어낸 뒤 새로운 물감을 덮는다. 기존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획이 더해질 때마다 분명했던 모습은 흐려지고, 그 자리에 다른 대상이 생겨난다. 이는 철원의 숲에서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뒤엉켜 어느 가지가 어디에서 시작해 어디로 이어지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던 그의 경험과도 닮아 있다.

03053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0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info@hakgojae.com www.hakgojae.com

※ 이미지 및 텍스트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가로지르는 선들은 일정한 방향이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 가까운 것이 멀어 보이고, 뒤에 있던 사물이 앞으로 나오며, 대상과 배경의 구분도 무너진다. 그리는 것과 지우는 것을 거듭하는 동안 처음의 모습은 고정되지 않은 채 계속 변화한다.

색채 역시 미리 정해진 대상을 채우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어떤 색의 흔적은 명료한 대상으로 발전하고, 어떤 것은 끝내 이름 붙일 수 없는 상태로 남는다. 여러 색의 층이 포개지면서 화면에는 우연히 생겨난 부분과 의도적으로 그린 부분이 함께 남는다. 특히 최근 작업에서 흰색과 어둠은 공간에 깊이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박광수에게 흰색은 단순히 밝음을 나타내지 않는다. 강렬한 색과 점차 어두워지는 색들 사이에 놓인 흰색은 오히려 묵직한 중량감을 만들어낸다. 반면 검은색에 가까운 부분은 공간을 비틀어 놓는다. 한낮의 쨍쨍함도 구름이 해를 가리는 순간 전혀 다른 표정을 갖듯이, 어둠은 화면에 예기치 못한 깊이를 더한다.

전시 제목《흰 우유의 어둠》은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의 저서『대지와 휴식의 몽상』(1948)[1]에서 착안했다. 그는 우유의 두텁고 불투명한 흰색에서 출발해 그 아래에 존재할 법한 어둠을 상상하며, 눈에 보이는 성질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물질의 깊이를 이야기한다. 박광수 역시 자신이 보고 경험한 현실을 기억과 상상을 통해 새로운 풍경으로 빚어낸다. 그의 작품에서 익숙함과 낯섦, 평온함과 불안은 하나의 풍경 안에 공존하며,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현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 이때 어둠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아직 마주하지 못한 세계를 상상하게 하는 미지의 영역이기도 하다. 결국《흰 우유의 어둠》은 익숙한 현실 너머에 존재할 수 있는 또 다른 세계를 상상하도록 이끈다.

[1]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1884–1962),『대지와 휴식의 몽상(*La Terre et les Rêveries du repos*)』, 조제 코르티(José Corti), 1948, 제1장 제4절, 23-26쪽.

03053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0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info@hakgojae.com www.hakgojae.com

※ 이미지 및 텍스트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부탁드립니다.

3. 작품 소개



안으로
2026
Oil on canvas
116.8x91cm



옥수수밭
2026
Oil on canvas
116.8x91cm



유치와 땅굴
2026
Oil on canvas
65.1x80.3cm

<모든 하늘>에는 지면에서 떨어져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들이 잠들어 꿈을 꾸는 것인지, 혹은 삶과 죽음 사이의 어느 지점에 놓여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청록색과 분홍색, 보랏빛이 감도는 숲에서는 나뭇가지와 풀잎이 무성하게 뒤엉켜 있지만, 그 사이에 누운 사람들은 움직임 없이 고요하다. 복잡한 주변 풍경과 대비되는 정적인 자세는 시간이 멈춘 듯한 인상을 남긴다. <모든 하늘>이 인물의 불확실한 상태를 통해 중력과 시간의 질서에서 벗어난 공간을 보여준다면, <안으로>는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주목한다. 붉은빛에 잠긴 숲속에는 한 인물이 서 있고, 검게 얽힌 식물들은 주변을 더욱 깊고 어둡게 만든다. 화면 전체를 뒤덮은 붉은색은 마치 특정한 렌즈를 통해 세상을 들여다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직접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매개를 거쳐 전달받은 광경처럼 느껴진다. 두 작품에서 인물의 위치와 시각의 조건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공간의 질서를 흔들어 놓는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유년의 경험을 다룬 작품에서 사물의 크기와 형태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옥수수밭>과 <유치와 땅굴>은 작가가 어린 시절 빠진 유치를 땅에 묻었던 일에서 비롯된다. <옥수수밭>에서는 가지런히 박힌 옥수수 알갱이가 치아를 연상시키며, 땅에 묻힌 작은 유치는 식물의 모습으로 되살아난다. <유치와 땅굴>에서는 거대한 구덩이 안에 인물이 턱을 괴고 엎드려 있다. 어린아이가 유치를 묻기 위해 팠던 작은 구멍은 사람이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깊고 넓은 장소로 바뀌었다. 한 작품에서는 형태의 유사성을 통해 사물들이 연결되고, 다른 작품에서는 작은 행위가 거대한 공간으로 확대된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그때의 감정과 연상을 따라 현실의 비례를 벗어나며, 화면 안에서 독자적인 장면을 이룬다.

앞선 작품들이 인물의 상태와 시선, 사물의 크기를 통해 일상의 질서를 달리 보여준다면, <설원>에서는 색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가가 직접 제조한 안료를 사용한 이 작품에서는 푸른색과 보랏빛이 깔린 눈덮인 숲을 주황빛 나무가 가로지른다. 가느다란 가지들은 사방으로 뻗어 나가고, 그 아래로는 추위를 피하듯 몸을 감싼 사람들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차가운 설경을 가르는 선명한 나무의 색은 계절의 온도와 어긋나는 시각적 긴장을 만들어낸다.

學古齋
Hakgojae
Gallery
03053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0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info@hakgojae.com www.hakgojae.com

※ 이미지 및 텍스트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부탁드립니다.



설원
2026
Oil on canvas
130.3x162.2cm

박광수는 실제로 보고 경험한 자연과 신체, 사물을 사실적인 묘사에 한정하지 않는다. 공중에 머무는 인물, 붉은빛에 잠긴 숲, 옥수수와 거대한 땅굴로 이어지는 유년의 기억, 강렬한 색이 교차하는 설원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작가의 내면을 드러낸다. 그 안에서 구체적인 경험은 상상과 결합하고, 익숙한 대상들은 이전과 다른 관계 속에 놓인다.

※ 이미지 및 텍스트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부탁드립니다.

4. 작가 소개

박광수(1984-)는 풍경과 인물의 경계를 흐트러뜨려 모호한 장면을 이끌어낸다. 일상적 풍경을 확장하고, 공상의 세계로 나아간다. 박광수의 선은 역할을 바꿔가며 화면 속 세계를 확장해 나간다. 박광수는 자신의 작업이 어두운 숲속을 더듬어 가는 길 같다고 한다. 의식 너머에 숨은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다양한 명도의 흑백 선이 중첩하며 우거진다. 선은 숲의 윤곽이 되고, 어둠이 된다. 숲은 미지의 생명이 꿈틀대는 장소다. 꿈과 현실의 경계이자 태초의 무의식이 자리한 공간이다. 숲이 무성해질수록 형상은 모호해진다. 선이 흐릿해질수록 숨은 존재가 모습을 드러낸다.

박광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과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았다.《흰 우유의 어둠》(2026, 학고재, 서울),《구리와 손》(2023, 학고재, 서울),《크래커》(2021, 카다로그, 서울),《영영 없으리》(2019, 학고재, 서울),《흩날리는》(2018, 두산갤러리, 뉴욕, 미국),《좀 더 어두운 숲》(2016, 금호미술관, 서울)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주요 단체전으로는《먼지를 걷는 자들》(2025, 신한갤러리, 서울),《형상 회로: 동아미술제와 그 시대》(2025, 일민미술관, 서울),《흙으로부터》(2025, 학고재, 서울),《미니버스, 오르트 구름, ㄷ떨:안녕인사》(2025, 아르코미술관, 서울),《언박싱 프로젝트: 메시지》(2025, 쾨닉 텔레그라펜암트, 베를린, 독일),《콘크리트 앱스트렉션》(2024,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파주),《Time Lapse》(2024, 페이스갤러리, 서울),《꿈에》(2023, 주홍콩한국문화원, 센트럴, 홍콩),《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2022,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등이 있으며, 종근당 예술지상, 두산연강예술상을 수상했다.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금호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등 주요 기관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5. 작가 약력

1984 강원도 철원 출생
현재 서울에서 거주 및 작업

학력
201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과 졸업
2008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과 졸업

개인전
2026 흰 우유의 어둠, 학고재, 서울
2023 구리와 손, 학고재, 서울
2021 크래커, 스페이스 카다로그, 서울
2019 영영 없으리, 학고재, 서울
2018 흩날리는, 두산갤러리 뉴욕, 뉴욕, 미국
2017 부스러진, 두산갤러리, 서울
2016 좀 더 어두운 숲, 금호미술관, 서울
2015 검은 바람, 모닥불 그리고 북소리, 신한갤러리, 서울

03053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0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info@hakgojae.com www.hakgojae.com

※ 이미지 및 텍스트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부탁드립니다.

2014 워킹 인 더 다크, 쿤스트독 갤러리, 서울
2013 반허공,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2 맨 온 필로우, 인사미술공간, 서울
2011 어 스페이스 콜로니, 갤러리비원, 서울

단체전

2026 서포트 사루비아,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서울
2025 먼지를 걷는 자들, 신한갤러리, 서울
형상 회로: 동아미술제와 그 시대, 일민미술관, 서울
흙으로부터, 학고재, 서울
아이돌로그래피: 프레시움에서 읽는 K-POP with Myk FESTA, 신문박물관, 서울
형상은 예외가 아닌 규칙, 하이트컬렉션, 서울
미니버스, 오르트 구름, ㄷ떨:안녕인사, 아르코미술관, 서울
언박싱 프로젝트: 메시지, 쾨닉 텔레그라펜암트, 베를린, 독일
서포트 사루비아,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서울
2024 더스트 인 더 윈드, IAH, 서울
이름을 문지르며, 일우스페이스, 서울
콘크리트 앱스트랙션,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파주
후렴구 도둑, 에브리아트, 서울
손금 너머 선, 스페이스 카다로그, 서울
어느 시간에 탑승하시겠습니까?, 페이스갤러리, 서울
2023 마니에라, 두산갤러리, 서울
누크갤러리 살롱전, 누크갤러리, 서울
꿈에, 주홍콩한국문화원, 홍콩
서포트 사루비아,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서울
2022 제주비엔날레: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살갗들, 학고재, 서울
하우 데이 워크, 에브리아트, 서울
언박싱 프로젝트: 오늘, 뉴스프링프로젝트, 서울
서포트 사루비아,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서울
2021 송은미술대상전, 송은, 서울
진동하는 숲, 또 하나의 그림자, 페이지룸8, 서울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오채찬란 모노크롬-생동하는 수묵의 새로운 출발, 비엔날레 3관
유달초등학교(구 목포공립심상소학교), 목포
빈지 워칭; 14284", 경기도미술관, 안산
비록 춤 일지라도, 코스모40, 인천
돈 세이 어 워드, 아트스페이스 휴, 파주
문인사 기획전 6: 김훈, 여기에서 나는 산다, 성북예술창작터, 서울
38˚C, 학고재, 서울
2020 아트 플랜트 아시아: 토끼 방향 오브젝트, 덕수궁, 서울
창원조각비엔날레 특별전 2: 그리고 둘만 남았다, 성산아트홀, 창원
기대는 그림, 누크갤러리, 서울

03053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0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info@hakgojae.com www.hakgojae.com

※ 이미지 및 텍스트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부탁드립니다.

동그라미에게, 의외의조합, 서울
이 공간, 그 장소: 헤테로토피아, 대림미술관, 서울

2019 칸 퍼레이드: 칸쑈네 - 타고난 버라이어티, 탈영역우정국, 서울
가능한 최선의 세계,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서울
예테보리국제도서전: 67개의 밤, 스웨덴 전시·회의센터, 예테보리, 스웨덴
프리뷰, 학고재, 서울
금호영아티스트: 16번의 태양과 69개의 눈, 금호미술관, 서울
디엠지, 문화역서울284, 서울
코끼리, 그림자, 바람, 경기도미술관, 안산
회화의 시간: 종근당 예술지상 역대 선정작가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기초조형연구 I, 일우스페이스, 서울

2018 북쪽의 숲, RX갤러리, 파리, 프랑스
종근당 예술지상,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2017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인간 X 기계 시스템,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광주
B컷 드로잉, 금호미술관, 서울
메모리 트릴로지, 갤러리 플래닛, 서울
난지아트쇼 I: 20면체 분광기,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2016 백야행성, 합정지구, 서울
블랙, 더 정글, 스페이스K, 대구
트윈 픽스, 하이트컬렉션, 서울
장소와 각주, 금천예술공장, 서울
더 애니메이션 쇼, 신세계갤러리 센텀시티, 부산
불명열, 갤러리175, 서울
삼키기 힘든, 두산갤러리, 서울
우드컷팅, 가변크기, 서울

2015 홍성, 답다: 얼굴, 초상, 군상, 이응노의 집, 홍성
디지펀아트: 도시 풍경,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어쩌다보니, 애니메이션, 아트스페이스 오, 서울
회화 - 세상을 향한 모든 창들, 블루메미술관, 파주
우주는 대체로 텅 비어있다, 오픈베타공간 반지하, 서울
페르소나, 갤러리 그림손, 서울

2014 살아있는 밤의 산책자, 지금여기, 서울
걷기, 리듬의 발견, AK갤러리, 수원
아르코아카이브 프로젝트 1: 뉴 아카이브 매터리얼스, 아르코미술관 아르코아카이브, 서울
오늘의 살롱, 커먼센터, 서울

2013 플랫폼 아티스트,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공중시간, 성곡미술관, 서울
오프 앤 프리 국제확장영화예술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어린이 미디어아트 체험 - 미디어+놀이터, 트라이볼, 인천
I=EYE, 키미아트, 서울
플랫폼 액세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2 우민극장 2012 만국박람회, 우민아트센터, 청주

03053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0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info@hakgojae.com www.hakgojae.com

※ 이미지 및 텍스트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부탁드립니다.

점령,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0 이해를 향한 오해, 송원아트센터, 서울
1+1, 짐 프로젝트, 서울
2009 광화문, 상상, 세종문화회관 광화랑, 서울
가변크기 2, 보다갤러리, 서울
가변크기 1, 토포하우스, 서울
2008 씨네 포럼 4: 디지털 포트폴리오 – 6가지의 시각,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언 이디엇 위드 어 비디오 카메라 vol. 1, 갤러리 안단테, 서울

프로젝트

2017 혁오 정규 1집 앨범『23』타이틀곡〈톰보이〉뮤직비디오 제작
2012 《광장사각廣場四角 – 홍승혜》(아뜰리에 에르메스, 서울) 협업

레지던시

2018 두산레지던시 뉴욕, 뉴욕, 미국
2017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2015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서울
2014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서울
2013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인천
2012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수상

2016 두산연강예술상, 두산아트센터, 서울
종근당 예술지상, 종근당홀딩스, 서울

소장처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경기도미술관, 안산
금호미술관,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두산아트센터, 서울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서울

學古齋
Hakgojae
Gallery
03053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0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info@hakgojae.com www.hakgojae.com

※ 이미지 및 텍스트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부탁드립니다.

6. 전시 서문

*서문을 발췌하실 경우, 반드시 작성자와 출처를 함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색의 불온

이주연(학고재 기획 팀장)

사라진 것은 어디에 남는가. 한때 가까웠던 사람, 늘 오가던 길, 무심히 지나쳤던 순간들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집과 고향은 늘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을지라도, 그곳을 채웠던 풍경은 이미 달라져 있다. 누군가와 함께 머물렀던 공간에서 그의 부재를 실감하고, 우연히 스친 향기 속에서 잊고 지냈던 순간이 선명하게 피어나기도 한다. 문득 되살아난 장면은 과연 지나온 실제와 얼마나 일치할까. 또렷이 남은 기억과 희미해진 잔상이 뒤섞이는 틈새를 우리는 상상으로 채워 넣는다. 흩어져 있던 사건들이 뜻밖의 맥락으로 이어지고, 때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마저 오래전 직접 겪은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진다. 결국 사라진 것은 그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은 흔적 위에서 다시 쓰인다.

박광수의 회화에서 숲은 오래전부터 현실의 이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초기 작업에서는 제한된 색으로 이루어진 촘촘한 선들이 뒤엉키며 윤곽을 흐리고, 혼돈과 불확정성이 자리한다. 이후 다채로운 색채가 더해지면서 이미지가 한층 뚜렷해지고, 화면 안에서 벌어지는 일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는 작업의 근본적인 방향이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하나의 인과관계로 규정되지 않는 새로운 모순을 그려낸다.

꿈속에서는 각기 다른 장소가 하나로 연결되고, 접점이 없던 대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며, 불가능한 일조차 당연하게 수용된다. 박광수의 작품에서도 현실의 법칙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신체가 대지의 일부가 되거나, 몸에서 떨어져 나온 형상이 하늘에 떠 있는 등 인간과 자연의 경계가 허물어진 자리에는 낯익으면서도 기묘한 광경이 펼쳐진다. 꿈의 논리를 닮은 이러한 묘사는 단순한 환상이라 치부하기 어렵다. 오히려 우리가 믿어 온 세계가 과연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 되묻게 한다.

이번 전시는 그간 이어 온 회화적 시도를 확장하며 '그리움'이라는 감정에 주목한다. 작가가 태어나 오랜 시간을 보낸 철원은 작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배경으로 자리한다. 용암이 흘러내려 형성된 평야 그리고 주변의 산과 강에는 지질학적 변천과 삶의 궤적이 새겨져 있다. 한때 치열한 전쟁을 겪었고, 지금도 분단의 군사적 경계가 남아 있는 이곳에서는 넓은 들녘과 눈에 드러나지 않는 위험이 공존한다.

"그 땅 어딘가에는 나의 유치가 묻혀 있고, 발견되지 않은 지뢰가 묻혀 있다.
여름이면 평상 에 앉아 옥수수를 먹으며 지뢰 지대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1]

이 짧은 일화는 철원이 지닌 복합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평범한 일상과 역사적 폭력의 자취는 별개로 존재하지 않고, 동일한 터전에서 중첩되어 나타난다. 땅속에 묻힌 유치와 발견되지 않은 지뢰 역시 상이한 의미를 지니면서도, 지표 아래에 감춰져 있다는 공통점을 형성한다.

---

[1] 박광수,「흰 우유의 어둠」, 작가노트, 2026.

03053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0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info@hakgojae.com www.hakgojae.com

※ 이미지 및 텍스트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부탁드립니다.

다만 박광수가 철원을 통해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거나 잃어버린 시절을 되찾으려는 것은 아니다. 그에게 그리움은 돌아갈 수 없는 과거와 이어지는 현재 사이의 '거리'에서 비롯된다. 또한 그 간극을 메우거나 지나온 시간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려 하지도 않는다. 대신 그리움이 향한 대상들을 기억 속에서 길어 올리고, 상상력으로 다시 빚어낸다. 서로 무관했던 정경과 이야기들은 한데 엮이며 실재하지 않는 새로운 지형을 이룬다. 화면 속 철원은 어느 한 시절에 귀속되지 않으며, 사적인 추억으로도 환원되지 않는다.

이를 이해하는 데에는 서로 다른 두 철학자의 사유가 실마리가 된다. 박광수가 전시 제목을 구상하며 참조한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는『대지와 휴식의 몽상(La Terre et les Rêveries du repos)』에서 물질의 외형을 넘어 그 내부를 향하는 상상력을 논한다. 우유의 희고 매끄러운 표면 아래에 어둠을 떠올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질만으로 사물의 본질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음을 시사한다. 한편 앙리 베르그손(Henri Bergson)의『물질과 기억(Matière et mémoire)』은 지나간 시간이 현재의 지각과 행동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탐구한다. 두 철학자는 각기 다른 문제를 탐구하지만, 직접 보는 것만으로는 존재의 양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함께 살펴볼 만하다. 바슐라르의 관점에서 박광수의 그림이 품은 낯선 깊이를 읽어낼 수 있다면, 베르그손을 통해서는 지나온 시간이 그리는 행위에 스며드는 방식을 헤아릴 수 있다.

전시 제목《흰 우유의 어둠》은 색의 대비가 아니라, 순백의 우유의 안에 어둠을 상상한다는 역설을 담고 있다. 박광수에게 회화는 눈앞에 드러난 외양만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것들에 형체를 부여하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가시적·비가시적인 것의 구분이 아니다. 이는 색채의 운용에서도 드러난다. 여러 색들 사이에 놓인 흰색은 때로 묵직한 덩어리처럼 자리하고, 어둠에 가까운 색은 도리어 공간에 깊이를 부여한다. 고요한 수면 아래 눈에 보이지 않는 물길이 흐르듯이, 그 이면에는 긴장과 불길함이 잠재해 있다. 그러나 어둠을 반드시 두려움이나 불행의 징후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것은 쉽게 정의할 수 없는 심연이자, 아직 마주하지 못한 영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지이기도 하다.

'백색의 불온'은 이번 전시를 관류하는 감각을 함축한다. 여기서 불온함은 단순히 위협적인 기색을 의미하지 않는다. 평온한 풍경에 감지되지 않는 위험이 깃들고,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기이한 장면이 오래도록 여운을 남기듯, 당연하게 여겨 온 규칙이 통용되지 않고, 익숙한 것들이 더 이상 자명하지 않게 되는 상태에 가깝다. 어쩌면 박광수가 펼쳐 보이는 것은 현실 너머의 환상이 아닐지도 모른다.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일상의 또 다른 얼굴이 아닐까.

學古齋
Hakgojae
Gallery
03053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0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info@hakgojae.com www.hakgojae.com

※ 이미지 및 텍스트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부탁드립니다.

7. 전시 서문

*서문을 발췌하실 경우, 반드시 작성자와 출처를 함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기에도 숨기기에도 좋았다[1]

신지현(일민미술관 큐레이터)

기이할 만큼 그 모양이 구체적인 것들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새의 깃털, 노인의 수염, 이빨과 옥수수처럼 세밀한 형상들. 수풀과 들판, 불타는 땅과 어두운 숲은 분명 풍경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곳이 어디인지는 좀처럼 특정되지 않는다. 풍경은 어느 순간 얼룩이나 색면으로 흩어지고 다시 얇은 선들 사이로 숨어든다. 무언가를 알아보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형상은 다른 이미지와 얽히고, 하나의 장소에 도착했다고 생각하면 너머가 보인다. 기억과 몽상이 뒤섞인 세계를 그리는 작가에게 이토록 구체적인 형상은 왜 필요한 것일까? 어쩌면 이 구체성은 박광수가 자신의 그림을 현실에 붙들어두기 위한 것 아닐까? 그러나 그가 붙잡은 현실이라는 것은, 이상하게도 구체적일수록 더욱 불확실해진다.

박광수의 그림, 그의 몽상이 거듭 호출하는 장소는 작가의 고향이기도 한 철원이다. 서울에서 원산으로 이어지는 균열 지형인 추가령 구조곡, 겨울마다 도래하는 철새들, DMZ와 민간인통제선 일대의 논과 습지, 여전히 진행 중인 군사적 대치와 주민들의 일상. 철원을 이루는 여러 겹의 맥락 사이로 한 개인의 기억이 부지불식간에 드나든다. 여름날 평상에 앉아 옥수수를 먹으며 지뢰 지대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던 일, 겨울이면 마른 식물이 타던 냄새 같은 것들. 그곳에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지뢰들과 작가가 어린 시절 묻어둔 유치가 함께 숨겨져 있다. 그의 작업에서 철원은 고향이라는 단선적 미시 서사로 귀속되기보다, 서로 다른 시간이 뒤섞인 채 해소되지 않은 그리움과 폭력이 여전히 잔존하는 살아 있는 장소로 작용한다.

그는 '기억을' 그리기보다 '기억처럼' 그린다. 이 말은 화면의 구조를 살필 때 더 분명해진다. 기억은 파편적이고, 제멋대로 연결되며 판타지를 펼쳐낸다. 박광수의 그림이 풍기는 몽환적인 분위기, 꿈을 닮은 환상성 기저에는 감정, 욕망이 뒤섞인 축축함이 배어 있다. 8점으로 구성된 〈모든 하늘〉 연작이 마치 화면 아래 길게 누운 몽상가가 꾼 8일간의 꿈속처럼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저마다 다른 시공에 속한 듯 보이는 풍경, 선으로 엉키다가 형상으로 매듭지어지는 그림의 방식은 분명 기억과 닮은 구석이 있어 보인다.

이번 신작에서 가장 먼저 감지되는 변화는 화면의 트임이다. 화면의 밀도는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비워진 듯하다. 정확히 말하면 비워진 것이 아니라 넓어진 탓일 것이고, 그 자리엔 풍경의 레이어가 한 겹 더 들어선다. 〈까마귀의 숲〉에서 덤불 사이로 물길이 열리는가 하면, 〈마른 식물이 타는 냄새〉 너머로, 〈불 밭〉 아래로 평야가 펼쳐진다. 이전 그림에서 사건이나 형상이 화면 안의 한 지점에 시선을 붙들어두었다면, 이제는 형상 너머로 다시 다른 공간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시선은 화면의 앞과 뒤, 가까운 곳과 먼 곳, 형상과 선, 색 사이를 계속해서 오가게 된다.

---

[1] 이제니, 『영원이 미래를 돌아본다』, 「우리가 잃어가게 될 그 모든 순간들_숨기에도 숨기기에도 좋았다」, 83쪽.

※ 이미지 및 텍스트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부탁드립니다.

그는 한동안 면과 붓질을 정제하며 화면을 정돈하려 시도해 왔다. 그러나 올해 개인전을 준비하며 오랜만에 다시 찾은 철원의 인적이 드문 수풀 속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제멋대로 뒤엉키고 꺾이며 자라던 '존재들'을 보고 난 뒤, 화면을 왜 굳이 정돈해야 하는지 되묻게 된다. 박광수는 물감을 올리고, 밀고, 지우며 그 위에 다시 선을 긋는다. 그려진 것은 사라지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다른 물감 아래 희미한 흔적으로 남는다. 물감이 흐른 자리나 예상하지 않았던 선도 이전보다 쉽게 허용한다. 방법 자체가 달라졌다기보다 화면이 도달해야 할 최종 상태를 느슨하게 통제하며 그림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 일종의 '유예'라 하겠다. 무엇을 남기고 없앨지 서둘러 결정하지 않으면서 축적된 시간은 화면의 앞뒤를 뒤섞고, 깊이를 만드는 데 일조한다.

작가는 근래 들어 화면 안에서 중량감을 만드는 요소로서 흰색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말한다. 반면 검은색은 그 깊이에 균열을 만들며 화면을 메타적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예를 들어, 〈안으로〉와 〈앞으로〉처럼 시선의 위치를 미묘하게 바꾸고 색을 반전시켜 대구를 이루는 그림을 그리거나 〈모든 하늘〉과 같이 연작 중 오직 한 점에만 짙은 얼룩 두 개를 그려 깊어지던 세계를 일시에 깨뜨리는 식이다. 이는 풍경 속으로 들어가던 시선을 문득 표면으로, 현실로 돌려놓는 역할을 한다. 누군가에겐 출구로 기능할 수도 있는 장치라 하겠다. 전시의 제목이기도 한, 작가가 바슐라르를 읽으며 떠올렸던 '흰 우유의 어둠'이라는 말도 이런 깊이를 가리킬 것이다. 눈에 보이는 표면 안쪽에 그것과 모순되는 무엇이 있으리라 상상하는 일 말이다. 그런데 박광수의 풍경은 아무리 넓고 깊어져도 시원하게 열리는 풍경과 거리가 있다. 축축하고 엉겨 있으며, 때로는 살이나 내장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원초적이다. 흐르고 튄 물감, 끈적하게 중첩된 색은 화면 전체를 살아 있는, 그러나 멍든 신체처럼 보이게 한다. 멍은 지나간 사건이 현재의 표면에 남긴 색이다. 〈추가령 구조곡〉에서 몸속을 들여다보던 눈은 어느새 멀리 펼쳐진 땅을 바라보고 있고, 〈마른 식물이 타는 냄새〉에서 하늘에 떠오른 뇌는 구름이 되어 번개를 내린다. 풍경이 신체를 닮아가는 동안 신체 역시 풍경에 놓인 하나의 사물이 된다. 외부의 풍경과 신체의 내부가 서로 뒤집히며 하나가 되어간다.

옥수수를 손에 쥐던 이는 철원에 숨겨둔 유치를 떠올리고(〈옥수수밭〉, 〈유치와 땅굴〉, 〈지뢰와 이빨〉), 물끄러미 새를 바라보던 이는(〈높이〉, 〈너의 정신〉) 시체처럼 몸을 뉘어 펼쳐진 세계의 소란과 생장을 관망한다(〈모든 하늘〉 연작). 몽상가의 시선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잠시 머물고 사라지는 것, 현실의 질서로 완전히 붙들 수 없는 것을 향했음을 깨닫는다. 구체성을 손에 쥐고 가까스로 현실에 발을 디딘 순간, 현실은 다른 곳으로 미끄러진다. 그 사이에서 마침내 그리움의 정서를 다시 마주한다. 여기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 저기를 바라보기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어딘가 손상된 감정이라 하겠다. 선들이 만들어내는 지독한 구체성은 작가의 눈이 향하는 곳과 발 딛고 있는 현실을 이어보려는 노력, 그 속에서 비로소 이해 가능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리움이란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무언가를 계속하게 만드는 감정이기도 하다. 그건 아마도 결코 해소되지 않을 상태에 머물며, 걷고, 그리고, 기록하는 일일 것이다. 박광수가 화면 안에서 끝없이 무언가를 밀어내고 닦아내며 다시 그리는 행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가 붙잡은 형상들은 다른 무엇과 얽히며 어느 시간에도 없었던 풍경을 만든다.

이제니의 문장에서 빌려온 이 글의 제목 "숨기에도 숨기기에도 좋았다"는 그림과 철원, 기억 사이를 오가는 상태를 떠올리게 한다. 박광수의 그림에서 무언가는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풍경은 형상이 되었다가 얼룩 속으로 숨어들고, 지워진 선은 다른 물감 아래 희미한 흔적으로 떠오른다. 철원 역시 기억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동시에 실재하는 장소다. 이 순환의 어디에도 원본으로 돌아가는 길은 없다. 그 속에서 박광수는 다시 형상을 그리고 선을 묻으며 '숨기에도 숨기기에도 좋은' 새로운 원본을 발생시킨다.

學古齋
Hakgojae
Gallery
03053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0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info@hakgojae.com www.hakgojae.com

※ 이미지 및 텍스트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부탁드립니다.

8. 작가 노트

*작가노트를 발췌하실 경우, 반드시 작성자와 출처를 함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흰 우유의 어둠

박광수

땅에 묻힌 내 유치(乳齒)가 말했다.
넌 빠져나갈 수 없어. 영원히 나를 그리워할 거야.

인간이 가진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궁금했다. 그리움은 이미 사라진 것을 여전히 존재하게 한다. 집과 고향은 같은 자리에 남아 있어도 그것을 집과 고향으로 만들었던 시간은 없다. 나에게 그리움은 부재하는 것을 기억과 상상력으로 현재에 불러내려는 마음이다. 그리운 풍경과 사람, 사건과 감각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떨어져 나온 현재 사이의 간극에 수많은 직선과 곡선을 긋는다. 선들이 서로 가로지르고 엉켜 촘촘한 그물망을 이루면, 마모되고 흩어진 기억과 상상의 파편들이 뒤엉켜 그 사이를 메운다. 그 얽힘 속에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어느 현실에도 존재하지 않는 몽상의 공간이 생겨난다. 나는 그 림보적 공간에서 기억과 상상이 뒤섞여 만들어내는 인물과 사건, 풍경을 그린다. 그것은 사라진 것들을 되돌리려는 일이 아니다. 과거와 현재 사이의 간극에서 어느 시간에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만들며, 그리움을 회화적 형식으로 변용하는 방식이다.

몽상의 공간은 내가 태어나 오래 살았던 철원에서 시작한다. 서울과 원산을 잇는 지형적 균열인 추가령 구조곡이 지나고, 오래전 흘러내린 용암이 만든 평야와 산, 강이 뒤엉킨 땅이다. 그곳에는 눈 덮인 평야와 논밭, 옥수수와 벼, 숲과 저수지, 마른 식물이 타는 냄새, 홍수와 불과 연기가 있다. 그 땅 어딘가에는 나의 유치가 묻혀 있고, 발견되지 않은 지뢰가 묻혀 있다. 여름이면 평상에 앉아 옥수수를 먹으며 지뢰 지대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숲과 연기, 뇌와 거미줄, 옥수수와 치아처럼 서로 다른 시간에 속한 장소와 생명, 사건과 감각은 기억 속에서 뒤섞여 하나의 풍경을 이룬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보았을지도 모르는 하늘, 땅속에 묻힌 유치와 땅굴, 오래전 땅 위를 흘렀던 용암도 같은 풍경 안에 놓인다. 현재에서 과거의 여러 지점을 거미줄처럼 연결해 나가지만, 그 선들은 서로 어긋나고 겹치면서 엉킨 실타래처럼 걸려 있다. 숲과 나무를 비롯한 자연의 형상들은 그 사이에서 서로 다른 과거의 지점들을 붙잡고 엉키게 하는 매듭이 된다.

이번 그림에서는 그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싶었다. 서로 다른 시간과 기억이 한 공간에 놓이면 현실의 질서는 조금씩 어긋난다. 몸이 땅이 되거나, 몸에서 빠져나온 뇌가 하늘에 떠 있고, 서로 다른 시간대의 사건들이 하나의 풍경 안에 동시에 나타난다. 분명히 보이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 현실의 질서에 작은 균열이 생기면서 다른 시간과 공간이 그 틈으로 들어오는 상태를 만들고 싶었다.

기억은 시간의 순서를 따라 정돈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그것들을 현실의 시간과 인과에 맞추어 정리하기보다, 서로 뒤섞인 상태 그대로 하나의 장면 안에 놓으려 한다. 철원의 숲에서 나무의 선들이 부러지고 가지들끼리 엉켜 그 위치조차 예측할 수 없는 상태를 보며 경험했던 실재감처럼, 그림에서도 선 위에 다시 선을 긋고 이미 그린 것을 문지르거나 긁고 덮으면서 무언가가 한 번 정해지는 것을 계속 유예한다. 그 과정에서 현실의 원근과 중력, 앞뒤, 개체와 배경의 논리는 조금씩 틀어지고, 위계가 세워지다 다시 무너진다.

03053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0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info@hakgojae.com www.hakgojae.com

※ 이미지 및 텍스트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부탁드립니다.

색 역시 처음부터 무엇을 나타낼 것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 섞이고 닦이고 덧칠되는 동안 노을이나 땅과 산, 나무와 잎, 뇌와 구름, 뿌리와 번개가 되기도 하고, 끝내 어떤 이름도 얻지 않은 채 물감의 흔적으로 남기도 한다. 그렇게 기억의 논리가 현실의 논리를 밀어내면서,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째서인지 숲의 한 귀퉁이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무언가가 생겨난다.

많은 색을 다루는 그림을 그리며 오히려 흰색과 어둠의 관계를 자주 생각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흰색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흰색은 화면을 단순히 밝게 만드는 색이라기보다, 잘 사용했을 때 화면에 묘한 중량감을 만들어 준다. 밝고 강렬한 색과 점차 어두워지는 색의 층, 그 사이에 섞이는 흰색이 화면의 깊이를 만든다. 검은색에 가까운 어두운 부분은 다른 색의 부분에 비해 공간을 비틀어 주는 역할을 한다. 공간을 비틀어 준다는 것은 감각적인 균열 같은 것이다. 일식이나 갑자기 드리운 구름의 그림자처럼, 어둠은 익숙했던 공간을 순간적으로 낯설게 만들고 그 안에 아득한 깊이를 열어 보인다.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가 흰 우유의 표면 아래에서 어두운 물질을 상상했던 대목을 읽으며 나는 '흰 우유의 어둠'이라는 말을 떠올렸다. 흰 우유 안의 어둠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흰 우유의 어둠은 보이는 흰색의 안쪽에 그것과 모순되는 어둠과 깊이를 상상하는 질료적 몽상에 가깝다.

나에게 그림을 그리는 일도 이와 비슷하다. 보고 기억하고 경험한 것 안에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일이다. 실제와 상상, 구체적인 형상과 이름 붙일 수 없는 흔적들이 서로의 안으로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없었던 공간이 생겨난다. 어쩌면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보이는 것의 안쪽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고 부수고 다시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